# 나주시, 강소특구 운영 활성화 나서

## 한전·특구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강소특구 기업커뮤니티 협약
## 기업 맞춤 지원·벨류체인 강화

나주시는 최근 혁신산업단지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서 전남도-한전-강소특구 44개 기업과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커뮤니티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특구기업'과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혁신산업단지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서 전남도-한전-강소특구 44개 기업과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커뮤니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주체 간 정보교류·보유역량 활용 등을 위해 특구기업 자체 커뮤니티 구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강소특구 중장기 성장 모델과 전략수립에 관한 공동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참여로 한전·특구기업 간 상호 협력, 이른바 '벨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구성은 총 44개 기업이 참여해 강소특구 주력사업인 지역특성화육성사업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화 ▲특화사업 ▲지능형전력그리드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주)한국항공조명 (주)유진테크노 (주)미래이앤아이 기업이 분과 리더기업으로 각각 지정돼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끈다.

나주시와 한전은 협약을 통해 기업 판로확보, 에너지산업 수요·공급·연계 지원 등 특구기업과의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균 기술기획처장은 "특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한전과 전력연구원 기반 공동 R&D기획, 기업 기술이해도 증진을 위한 전문가 1대1수요기술매칭의 기술 클리닉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스타기업 10개사를 육성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기반 통합정보 공유로 각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에 힘써가겠다"며 "특구 지정 2년차를 맞아 중앙부처, 전남도와 소통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기자 노트

## 브로커 선거판

김 용 기
중부 취재본부장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장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 군수와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후보자간 비방과 음해공작, 모략공방이 도를 넘어 지역사회가 살벌한 상황이다.

전남도지사와 도 의원, 군수, 군의원, 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지역 유권자들은 오직 어느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만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선군수는 '무소불위'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보니 '될만한 후보'에 줄서는 선거꾼 일명 '정치 브로커'들이 기웃거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의 제왕은 대통령이고 지역의 왕은 군수'라고 해 흔히들 군수를 '소통령'이라 부른다지만 해도 너무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지역 언론매체들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끼어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앙지나 유력 일간지의 경우 구조상 지역 단체장(시장·군수) 후보자에 대해 단발성으로 보도하거나 짧게 소개하는데 그치는 반면 지역언론은 마치 장편소설을 쓰듯 후보자 취향에 맞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지역언론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공정해야 할 언론이 일부후보에게 호의적인 편파보도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매점매석 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어촌 주민들은 검증없이 쏟아내는 지역언론의 마구잡이식 선거보도에 속을 가능성이 크다. 혈연과 지연의 병폐로 이웃간 갈등과 분열이 쌓여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더 높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까지 선거판을 흔들고 있으니 30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앞 날이 걱정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kykim@kwangju.co.kr

# 3년만에 개장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 인파 북적

## 개장 첫날 5000여명 다녀가

지난 7일 3년만에 개장한 마량놀토시장이 오랜만에 주민과 관광객들로 들썩였다. 〈강진군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휴장했던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이 3년만에 개장해 인파로 북적였다.

강진군은 지난 7일 문을 연 마량놀토수산시장 개장식날 5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4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8만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액 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강진 청자축제기간을 합쳐 모두 30회 내외로 운영한다.

운영 및 판매 부스는 6종 30개소이다. 횟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 좌판 7개소, 건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음식 코너 6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할머니장터 10개에서 다양한 수산물과 길거리음식, 지역 농특산물 등 연중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또 계절별로 신선한 수산물과 경품 행사를 활용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열린다. 봄에는 갑오징어와 주꾸미, 여름에는 농어와 전복, 갯장어, 된장물회, 가을에는 전어와 꽃게, 낙지, 대하 등을 할인 판매하며 매주 마량미항 토요음악회도 열린다.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노래자랑 코너도 운영되며 LED TV, 제습기, 온수매트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즐길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함평천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만들자" 결의대회

함평군이 '함평천지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2년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선정, 최근 시장 중앙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 함평천지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사업단은 ▲1년간 카드단말기 보급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교육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아케이드 및 공용 공간 청소 등을 약속했다. 또한 상인조직 역량강화와 시장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사업도 중점 추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시장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성화시장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은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서비스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포함 총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장성군, 코로나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 소상공인 등…8월 31일까지

장성군이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은 이들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8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이달 말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061-390-6824)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126)로 연락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화순군은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2022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최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원 38명을 권역별로 선발·구성하고 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총기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기동포획단을 권역별로 운영,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포획단은 현재 농작물 등 피해 신고를 받아 주·야간 순찰 포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 지역은 농작물, 특용작물, 과수피해지역, 농경지 훼손 지역 등이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꿩, 오리류 6종이다.

지난해에는 야생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708마리를 포획했다.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군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3)에 신고,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동포획단을 권역별로 운영하면서부터 접수와 출동이 신속해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